

1

성문암과 과각화증환자의 비디오
스트로보스코피 소견의 객관적
분석에 대한 연구

연세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언어의학연구소
최홍식 · 김광문 · 홍원표
김창규 · 김명상

Image grabbing board(DT 2853)을 이용하여 비디오 영상화면을 디지털 신호화하고 컴퓨터로 분석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Image Pro II 이며, 발생시에 진동주기에 따른 막양성대 중심부의 이동을 계측하고 도식화하였다. 정상 성인과 과각화증 환자, 성문암 환자에 대한 분석결과, 병변이 주로 상피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과각화증 환자에서는 점막진동이 별로 감소되지 않았으나, 성문암 환자의 경우에는 병기의 진행에 따라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2

우측 경부에 발생한 거대한
혈관외막세포종 1례

한림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김병철 · 노영수 · 임현준

혈관외막세포종은 매우 드문 혈관종양으로서 모세혈관과 증식하는 주위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모세혈관이 존재하는 부위라면 어느 곳이나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골근육계와 피부가 호발 부위이다. 이 종양은 모두 악성의 가능성을 가지나 임상적인

양상은 상당히 다양하며 가장 좋은 치료법은 가능한한 광범위한 외과적 절제술로 알려져있다.

저자들은 우측 경부 상부에서 인두주위간극과 뇌기저부까지 침범한 거대한 혈관외막세포종을 경이하선 집근술 및 하악골 절제술을 이용한 접근법으로 완전적출한 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3

구강저암의 임상적 고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이원종 · 심윤상 · 오경균
이용식 · 이국행

저자들은 1985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만 8년간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구강저암으로 확진된 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임상상과 생존율에 대한 고찰을 후향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58세였다. 남녀비는 5.4 : 1로 남자에서 많았다. 1992년 AJCC 분류법에 의한 병기는 1기가 7명, 2기가 21명, 3기가 21명, 4기가 41명으로, 진행된 병기가 많았다. 임상적으로 림프절전이 있었던 환자는 48명(53.5%)였다. 원격전이가 있었던 환자는 3명이었고, 다발암이 3명에서 확인되었다. 병리조직학적 분류는 편평세포암종이 가장 많아 82명이었고, 선양낭성암종 5명, 점액표피양암종 3명, 선암종 1명 등이었다.

치료는 항암약물요법의 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11명, 수술 및 수술과 방사선치료의 병합요법을 시행한 경우가 41명이었다. 치료를 시행한 52명의 5년 보형생존율은 36.1%였고, 수술을 시행한 6명은 59.5%,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11명은 16.4%, 병합요법을 시행한 35명에서는 38.7%의 생존율을 보였다.